

ISSN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 No.

중국의 내수용 공산품 수입시장 연구

- 省·市별 소비지역(Location of consumer) 분석 -

2015년 6월

장상식 연구위원

김아린 연구조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요 약]

I. 및 방법	1
II. 중국의 내수용 수입 동향	3
III. 중국 권역·省별 내수용 공산품 수입 동향	8
IV. 중국 내수용 공산품 수입시장에서의 국가간 비교	14
V. 중국 유망 수출 품목 및 지역	19
VI. 결론 및 시사점	26



내용 문의처

연구위원(☎ 02-6000-7622, paivano@kita.net)

김아린 연구조원(☎ 02-6000-7626, arin5036@kita.net)

【요 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 대해 수입자 지역(Location of importers)이 아닌 소비지역(Locations of consumers)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분석지역도 기존 省단위에서 도시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중국 내수시장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중국의 내수용 수입은 2011년 1조달러를 넘어섰으며, 중국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57%로 2005년의 42%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중국의 對韓 내수용 수입은 지난해 635억달러(1.8% 증가)로 한국이 수입 순위 5위를 차지하였으며, 공산품 기준으로는 630억달러(1.6% 증가)로 일본, 독일에 이어 3위를 나타내었다.

권역별로는 화동, 환발해, 화남 등 연안지역이 對韓 내수용 공산품 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연안지역중 장쑤省, 산둥省, 텐진에서 수입 순위 1위를 차지하였으나 상하이, 저장省, 푸젠省에서는 순위가 하락하였다. 반면 중부·서북 권역에서는 한국의 순위가 4~5권으로 연안지역에 비해 미흡하였으며 중부·서북 권역내 12개省 중 한국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省도 5개에 달하였다.

중국의 내수용 공산품(자동차 제외) 수입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지난해 12.1%로 2013년의 12.3%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소비재에서는 6.6%에서 6.7%로 소폭 상승하여 중국 소비재시장 진출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둥省에서의 소비재 점유율 상승이 컸는데 이는 지리적 근접성과 함께 산둥省의 B2C 수입거점 역할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은 여타국에 비해 중국 민간기업의 수입비중이 높아 중국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크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동차부품, 반도체, 축전지, 금속공작기계, 합성수지 등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 중국의 내수용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확대 지속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주서기, 비알콜음료, 기저귀, 공기정화기, 냉장고 등의 소비재에서도 중국의 수입증가세가 가파르고 한국의 점유율도 높아 이들 분야에 대한 수출 확대도 가능할 전망이다.

도시별로는 연안지역 도시의 수입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수입 급증 연안도시중 창수(장쑤省), 취저우(저장省), 웨이팡(산둥省), 닝더(푸젠省)시에서 점유율이 하락하였으며, 소비재 수입급증 도시의 경우 항저우(저장省), 우한(후베이省), 선양(랴오닝省), 타이창(장쑤省)에서 점유율이 하락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촉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도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중간재, 자본재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제품개발과 품질, 기능에서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의약품, 고급기계류 등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소비수준이 높은 상하이 등에서 선진국과의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제품고급화 및 브랜드화, 중국 맞춤형 상품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의 진출이 미흡한 중서부 권역에 대해서는 FTA 체결 잇점을 활용하여, 개발지역 및 소비거점 도시에 대한 현지 유통업체 공략, 온라인 B2C 수출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I. 연구배경 및 방법

1. 연구배경

- 중국의 경제규모 확대 및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1992년 수교이후 한·중간 경제협력이 점차 성숙기로 진입하고 한·중 FTA로 중국 내수시장 접근성도 개선 추세
 - 중국의 수입에서 내수용 수입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 확대
 - 한·중 FTA 체결로 중국의 관세철폐 품목 수 비중이 3년내 20%, 5년내 41%, 10년내 72%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한국기업이 경쟁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과 비관세장벽 측면에서 유리
- 지난해 한국의 對中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對중국 진출 전략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2014년중 對中 석유화학,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일반기계류의 수출이 감소하여 한국 주력품목의 對中 경쟁력 약화 우려
 - 한국의 경우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가공무역용 수출이 여전히 많은 반면 중국정부는 단순 임가공용 품목의 수입 제한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한국과 주요국에 대한 수입현황 및 경쟁력을 비교하고 對中수출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對중국 내수용 수출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유망품목 및 유망 수출지역 발굴 및 수출확대를 위한 과제를 파악코자 함

2. 연구방법

□ 중국의 내수용 수입을 의미하는 일반무역 (Ordinary Trade)을 분석

○ 중국해관의 무역형태별 분류는 20개로 크게 일반무역, 가공무역, 보세무역, 기타 등 4개 항목으로 구분됨

○ 이 중 일반무역이 내수용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타 무역형태도 내수용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제외

□ 지역별 분석은 수입자 주소기준(Location of importers)이 아닌 소비지 기준 (Locations of consumers)으로 省 및 도시지역까지 분석

○ 중국 지역별 수입통계가 수입자 기준과 소비지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소비지역 기준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분석

- 중국 수입자가 수입서류에 소비지역을 기재토록 되어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타지역에서의 소비 가능성이 있으나 국내 처음으로 중국의 내수용 수입을 소비지 및 도시지역 기준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중국 세관의 무역형태별 구분 〉

코드	무역 형태	구분
10	일반무역 (Ordinary trade, 一般贸易)	내수용 수입
11	무상원조 및 증정 (Int'l aid, 国家间, 国际组织无偿援助和赠送的物资)	기타
12	기타 기부물품 (Other Donation from Overseas, 其他捐赠物资)	
13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 补偿)	
14	내료 가공무역 (Process & assembling, 来料加工装配贸易)	가공무역
15	진료 가공무역 (Process with imported materials, 进料加工贸易)	
16	위탁대리판매 (Goods on consignment, 寄售代销贸易)	기타
19	변경 소액무역 (Border trade, 边境小额贸易)	
20	가공무역 설비수입 (Equipment for processing trade, 加工贸易进口设备)	가공무역
22	대외 하청 프로젝트 수출 화물 (Goods for foreign contracted project, 对外承包工程出口设备)	
23	임대무역 (Goods on lease, 租赁贸易)	
25	외투기업 설비수입 (Equipment/Materials investment by foreign-invested enterprise, 外商投资企业作为投资进口的设备, 物品)	가공무역
27	역외 가공무역 (Outward processing, 出料加工贸易)	
30	물물교환 (Barter trade, 易货贸易)	기타
31	면세 외환상품 (Duty-free commodity, 免税外汇商品)	
33	보세창고 출입국무역 (Warehousing trade, 保税监管场所进出境贸易)	보세무역
34	보세창고 중계무역 (Entrepot trade by bonded area, 特殊监管区域物流货物)	
35	수출 가공지역의 설비 수입 (Equipment imported into Export Process Zone, 特殊监管区域进口设备)	
39	기타 (Other trade, 其他)	기타
41	면세품 (Duty waived goods, 免税品)	

주 : 1) 분류코드는 중국해관에서 지정한 분류 기준임

자료 : 중국해관

II. 내수용 수입 동향

(1) 개황

□ 중국의 내수용(일반무역) 수입액은 2011년부터 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도 2014년중 57%에 달함

○ 2014년 중국의 내수용 수입액은 1조 1,095억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6.6%

- 내수용 수입의 비중은 2004년 44.2%에서 2014년에는 56.6%로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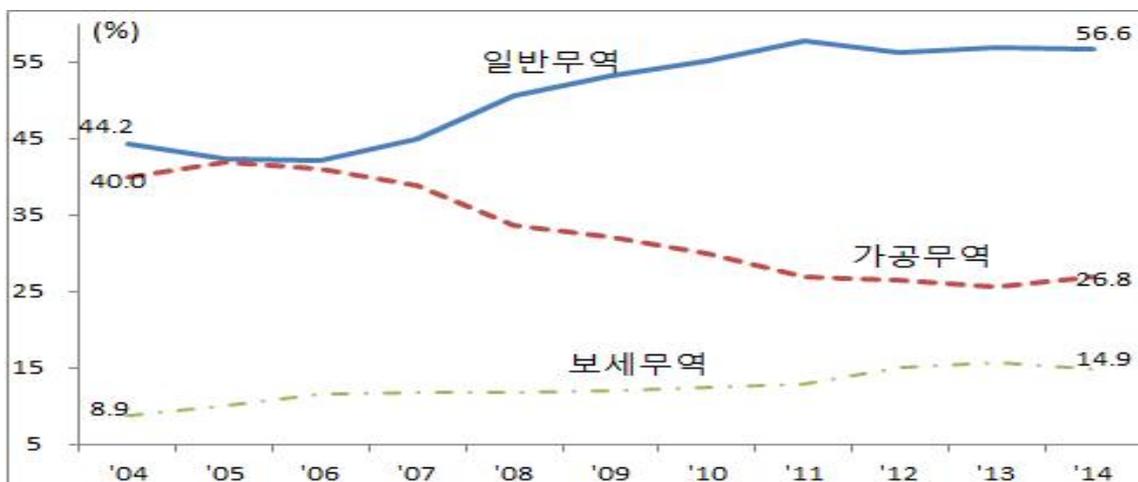
○ 반면 가공무역 수입은 2014년 5,254억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6.8%를 차지하였으며 2004년 44.2%에 비해 수입비중이 하락 추세를 보임

< 중국의 무역 형태별 수입현황 >

(억달러, %)

	2005	2011	2012	2013	2014	'05~'14 증감률
일반무역	2,796 (42.4)	10,076 (57.8)	10,224 (56.2)	11,097 (56.9)	11,095 (56.6)	<16.2>
가공무역	2,769 (42.0)	4,707 (27.0)	4,824 (26.5)	4,982 (25.5)	5,254 (26.8)	< 8.9>
보세무역	657 (10.0)	2,252 (12.9)	2,751 (15.1)	3,073 (15.8)	2,917 (14.9)	<19.4>
기 타	377 (5.7)	400 (2.3)	385 (2.1)	351 (1.8)	337 (1.7)	<-1.5>
전 체	6,600 (100)	17,435 (100)	18,184 (100)	19,503 (100)	19,603 (100)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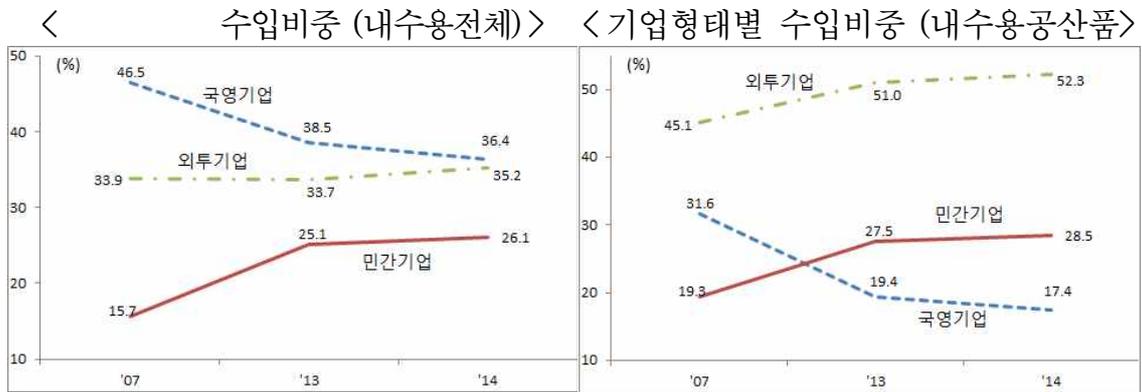
주 : 1. ()내는 비중, < >내는 연평균증감률



□ 기업형태별로는 국영기업 > 외투기업 > 민간기업 순으로, 국영기업의 비중은 하락, 민간기업은 상승세

○ 국영기업의 비중은 2007년 46.5%에서 2014년에는 36.4%로 감소한 반면 민간기업은 같은 기간 15.7%에서 26.1%로 크게 증가

○ 공산품 기준으로는 외투기업의 비중이 52.3%로 절반이상이며, 외투기업과 민간기업의 비중이 상승세



□ 가공단계별로는 1차산품의 수입비중이 42%, 중간재 37%, 자본재 11%, 소비재 10% 수준을 보임

○ 소비재 비중은 상승세, 중간재 비중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간재중에서는 반제품의 비중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음

〈중국 내수용 수입제품의 가공단계별 구분〉

(억달러, %)

	2007년	2013년	2014년	
1차산품	1,648 (38.4)	4,652 (44.6)	4,417 (41.8)	<-5.1>
자본재	552 (12.9)	1,150 (11.0)	1,192 (11.3)	< 3.7>
소비재	217 (5.1)	888 (8.5)	1,029 (9.7)	<15.9>
중간재	1,863 (43.4)	3,738 (35.8)	3,939 (37.3)	<14.7>
- 부품	645 (15.0)	1,316 (12.6)	1,500 (14.2)	<14.0>
- 반제품	1,218 (28.4)	2,422 (23.2)	2,439 (23.1)	< 0.7>
합계	4,287 (100)	10,430 (100)	10,579 (100)	< 1.4>

주 : 1. 입수된 중국 해관통계에서 HS 97, 98이 제외되어 이하 분석도 HS 97, 98 제외
 2. UN BEC 코드를 이용하여 분류 3. ()내는 비중, < >내는 전년비 증감률

(2) 품목별 수입

□ 품목별로는 에너지·곡물 등 1차산품 수입이 많은 가운데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제어계측기 등의 수입도 많은 편

○ 주요 수입품목(공산품, '14년 비중) : 자동차(5.4%), 반도체(5.1%), 자동차 부품(2.7%), 합성수지(2.7%), 계측제어기(1.8%), 유화중간원료(1.4%)

○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컴퓨터는 2014년중 두자리대 수입 증가를 보임

- 수입증감률 : 반도체(26.9%), 자동차(22.6%), 자동차부품(12.7%), 컴퓨터(10.2%)

< 중국의 내수용 상위 수입품목 >

(억달러, %)

내수용 수입 (상위품목순)			전체 수입 (상위품목순)		
품목	2013년	2014년	품목	2013년	2014년
원유	1,837	1,796 (17.0) < -2.2>	반도체	2,632	2,517 (13.4) < -4.3>
철광	1,005	901 (8.5) <-10.4>	원유	2,197	2,283 (12.2) < 4.0>
자동차	466	571 (5.4) < 22.6>	철광	1,058	940 (5.0) <-11.2>
곡실류	507	556 (5.3) < 9.5>	자동차	491	610 (3.2) < 24.2>
반도체	426	541 (5.1) < 26.9>	곡실류	538	591 (3.1) < 9.9>
자동차부품	250	282 (2.7) < 12.7>	컴퓨터	533	551 (2.9) < 3.4>
합성수지	265	282 (2.7) < 6.3>	무선통신기기	582	532 (2.8) < -8.5>
동제품	298	266 (2.5) <-10.5>	합성수지	487	511 (2.7) < 4.8>
천연가스	201	234 (2.2) < 16.1>	·센서	536	481 (2.6) <-10.2>
석탄	268	209 (2.0) <-21.9>	동제품	503	474 (2.5) < -5.7>
	174	186 (1.8) < 7.5>	보석	111	353 (1.9) <218.9>
목재류	143	181 (1.7) < 26.0>	항공기및부품	292	350 (1.9) < 20.0>
석유화학중간원료	181	149 (1.4) <-17.8>	자동차부품	270	307 (1.6) < 13.4>
컴퓨터	133	147 (1.4) < 10.2>	석유제품	364	292 (1.6) <-19.9>
플라스틱제품	134	143 (1.3) < 6.6>	기구부품	265	273 (1.5) < 3.0>
기계요소	135	142 (1.3) < 5.3>	계측제어분석기	233	250 (1.3) < 7.2>
원동기및펌프	145	141 (1.3) < -2.7>	플라스틱제품	236	241 (1.3) < 2.0>
석유제품	169	137 (1.3) <-19.0>	천연가스	205	238 (1.3) < 16.3>
제지원료	128	130 (1.2) < 1.0>	목재류	188	228 (1.2) < 21.4>
동광	130	121 (1.1) < -7.1>	석탄	290	222 (1.2) <-23.4>

주 : 1. ()내는 비중, < >내는 전년비 증감률

2. 중국의 HS6단위를 MTI 3단위로 연계하여 계산

(3) 국가별 수입

□ 한국은 중국의 총수입에서 1위이나, 내수용 수입은 5위를 나타냄

○ 중국의 對韓 수입은 2014년 1,829억달러(비중 10.1%)로 1위를 차지했으나 내수용 수입은 635억달러(비중 6.0%)로 5위를 기록

○ 내수용 수입 1위 국가는 미국이며, 공산품 수출이 대부분인 일본, 독일이 2~3위, 호주가 4위를 차지

- 내수용 수입순위(2014년) : 미국(1위), 일본(2위), 독일(3위), 호주(4위)

- 미국, 호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1차산품 수출국가의 내수용 수입순위가 전체품목 순위보다 높은 편

< 중국의 내수용 수입 상위국가 >

(억달러, %)

순위	내수용 수입 (상위국가순)			전체 수입 (상위국가순)		
	품목	2013년	2014년	품목	2013년	2014년
1	미국	884	906 (8.6) < 2.5>	한국	1,829	1,901 (10.1) < 3.9>
2	일본	829	837 (7.9) < 0.9>	일본	1,621	1,625 (8.7) < 0.2>
3	독일	735	819 (7.7) < 11.5>	미국	1,459	1,530 (8.1) < 4.8>
4	호주	840	814 (7.7) < -3.1>	대만	1,566	1,520 (8.1) < -2.9>
5	한국	624	635 (6.0) < 1.8>	독일	941	1,048 (5.6) < 11.3>
6	대만	422	487 (4.6) < 15.6>	호주	919	899 (4.8) < -2.2>
7	브라질	485	454 (4.3) < -6.3>	말레이시아	601	557 (3.0) < -7.4>
8		371	329 (3.1) < -11.3>	브라질	541	518 (2.8) < -4.3>
9	러시아	276	293 (2.8) < 6.1>	사우디아라비아	535	486 (2.6) < -9.2>
10	앙골라	286	253 (2.4) < -11.6>	러시아	396	416 (2.2) < 5.0>
11	이란	218	240 (2.3) < 9.9>	태국	381	382 (2.0) < 0.1>
12	태국	203	209 (2.0) < 3.0>	앙골라	320	311 (1.7) < -2.7>
13	말레이시아	198	196 (1.8) < -1.2>	싱가포르	299	305 (1.6) < 1.9>
14	인도네시아	255	192 (1.8) < -24.7>	이란	254	275 (1.5) < 8.3>
15	영국	145	178 (1.7) < 22.8>	프랑스	230	271 (1.4) < 17.6>

주 : 1. ()내는 비중, < >내는 전년비 증감률

□ 1차산품을 제외한 내수용 공산품¹⁾ 수입에서는 한국이 일본, 독일에 이어 중국의 3위 수입국에 해당

○ 내수용 전체에서 5위인 한국은 공산품 수입시장에서는 미국, 호주를 제치고 3위를 기록

- 내수용 공산품 수입비중('14년, %) : 일본(13.9), 독일(13.6), 한국(10.6), 미국(10.5), 대만(8.1), 영국(2.8)

○ 2014년 중국의 對韓 내수용 공산품 수입은 1.6% 증가하여 전체 내수용 공산품 수입증가율 5.4%를 하회한 반면 독일, 대만, 영국 등은 상회

〈 중국의 내수용 공산품 수입 상위국가 〉

(억달러, %)

순위	내수용 공산품 수입 (상위국가순)			전체 공산품 수입 (상위국가순)		
	품목	2013년	2014년	품목	2013년	2014년
1	일본	817	826 (13.9) < 1.1>	한국	1,822	1,894 (14.4) < 3.9>
2	독일	721	806 (13.6) <11.9>	일본	1,603	1,608 (12.2) < 0.3>
3	한국	620	630 (10.6) < 1.6>	대만	1,559	1,514 (11.5) < -2.9>
4	미국	617	625 (10.5) < 1.3>	미국	1,152	1,202 (9.2) < 4.4>
5	대만	418	484 (8.1) <15.6>	독일	925	1,033 (7.9) < 11.6>
6	영국	139	169 (2.8) <21.3>	말레이시아	527	492 (3.7) < -6.7>
7	말레이시아	140	144 (2.4) < 2.7>	싱가포르	296	303 (2.3) < 2.3>
8	태국	136	143 (2.4) < 4.7>	태국	286	292 (2.2) < 1.9>
9	싱가포르	121	140 (2.3) <14.9>	프랑스	215	253 (1.9) < 17.8>
10	이태리	124	136 (2.3) < 9.8>	영국	182	218 (1.7) < 20.1>
11	프랑스	117	119 (2.0) < 1.4>	이태리	172	189 (1.4) < 9.8>
12	벨기에	65	67 (1.1) < 2.3>	필리핀	153	166 (1.3) < 8.2>
13	캐나다	71	66 (1.1) <-7.7>	베트남	115	144 (1.1) < 25.1>
14	호주	63	63 (1.1) <-0.4>	미얀마	13	127 (1.0) <883.1>
15	인도네시아	60	59 (1.0) <-1.7>	칠레	118	123 (0.9) < 3.7>
	총 액	5,636	5,942 (100) < 5.4>	총 액	12,792	13,131 (100) < 2.7>

주 : 1. ()내는 비중, < >내는 전년비 증감률

1) 광산품(에너지)을 제외한 여타 제조 공산품이며, 기호식품, 농산가공품 및 석유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

Ⅲ. 중국의 권역·省별 내수용 공산품 수입동향

(1) 권역별 수입

□ 내수용 공산품 수입의 84%가 화동, 환발해, 화남 등 3개 권역에 집중

○ (수입비중) 화동(37.0%), 환발해(24.7%), 화남(22.3%) 등 연안지역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북(7.2%), 중부(4.5%)권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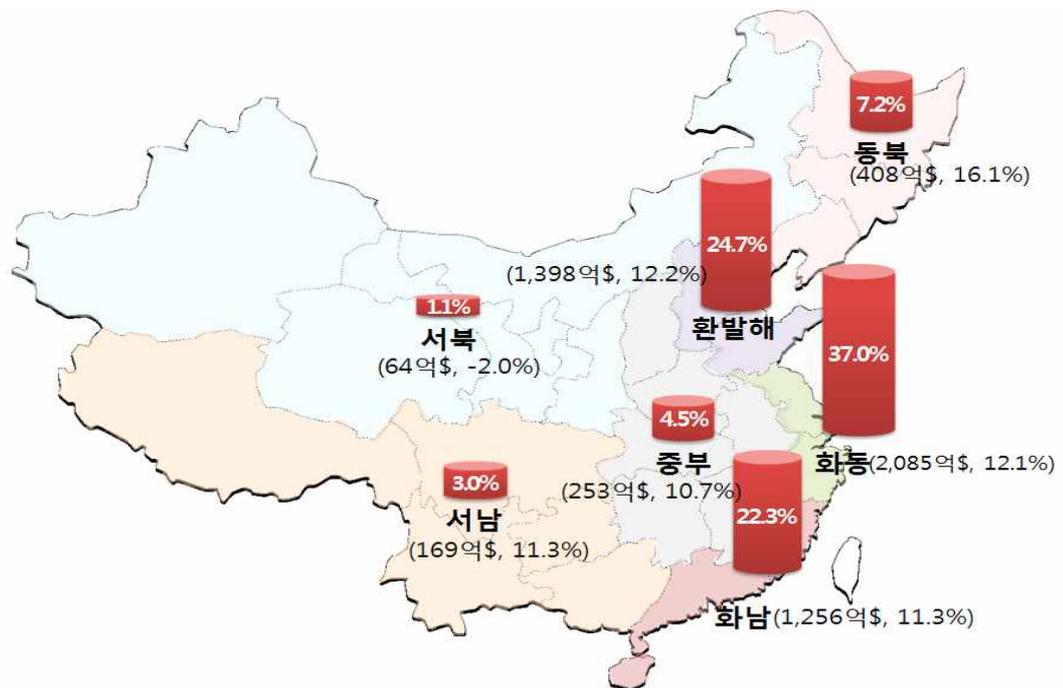
- 반면 낙후 지역인 서남(3.0%), 서북(1.1%)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

○ (수입증가율) 연평균(2008~2014년) 수입증가율은 서북을 제외한 여타 권역에서 모두 두자리대 증가세를 보임

- 동북권역의 수입증가율이 16.1%로 가장 높았으며 환발해(12.2%), 화동(12.1%), 화남(11.3%), 중부(10.7%) 순으로 높았음

〈중국의 권역별 내수 공산품 수입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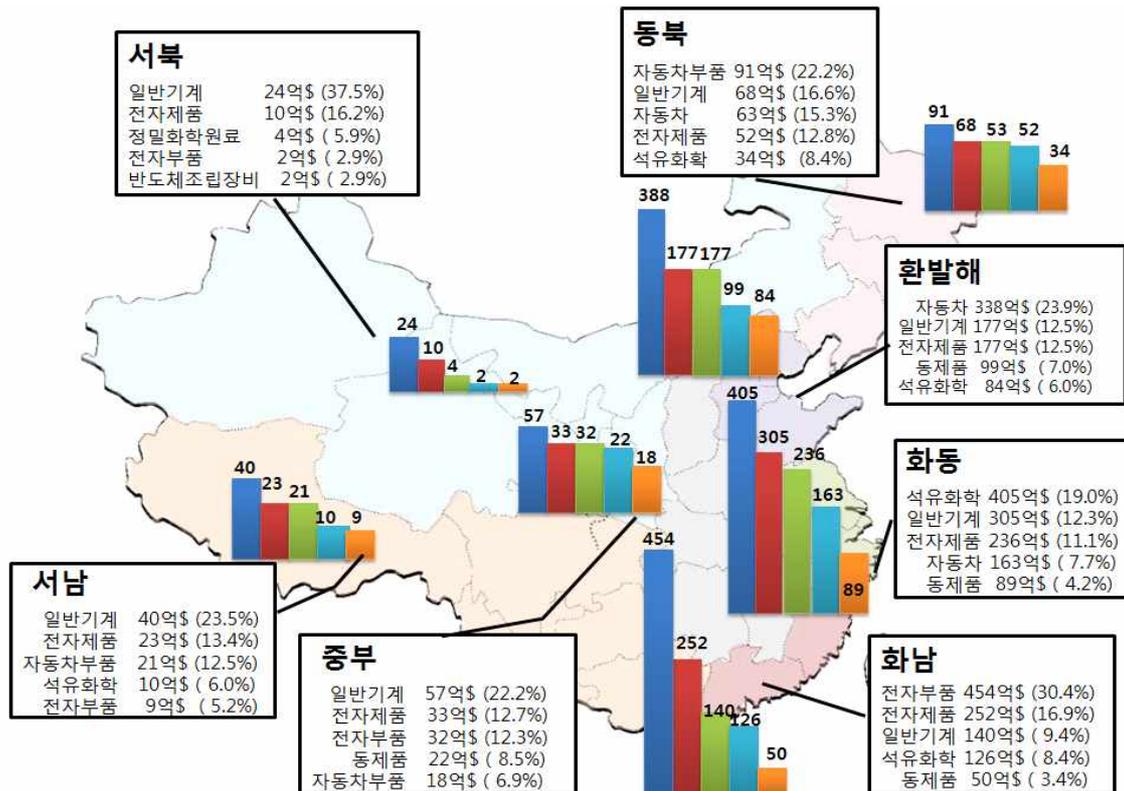


주 : ()내는 2014년 내수 공산품 수입액 및 2008~2014년중 연평균 수입증감률

- 품목별로는 화동권은 석유화학, 화남은 전자부품, 환발해는 자동차, 동북권은 자동차부품, 여타권역은 일반기계의 수입비중이 높은 편
- (화동) 석유화학 제품수입 비중이 2014년중 405억 달러로 19% 차지
- (화남) 전자제품, 전자부품의 수입비중이 47%로 절반에 육박
- (환발해) 자동차, 일반기계 비중이 각각 24%, 13% 차지
- (동북)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비중이 각각 22%, 17% 차지
- (서남·서북·중부) 일반기계가 최대 수입품목으로 수입비중은 중부에서 22%, 서남에서 24%, 서북에서 38%를 차지

〈중국의 권역별 주요 내수공산품 수입품목〉

(%)



주 : 1) 박스 내는 2014년 권역내 수입액이며 () 내는 해당품목의 권역내 수입비중
 2) 전자제품은 전자부품(반도체포함)과 여타 전자제품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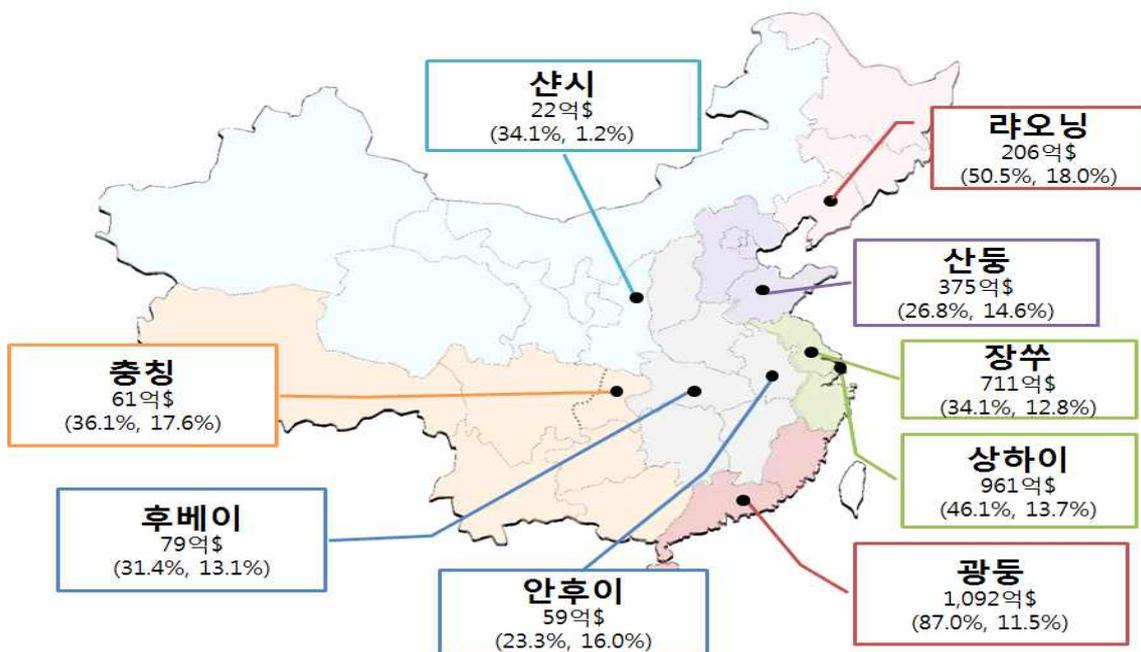
(3) 省별 수입비중

□ 수입액은 광둥省 > 상해 > 장쑤省 > 베이징 > 저장省 순으로 많았음

- (화동권) 상해, 장쑤省, 저장省의 수입비중이 권역내에서 각각 46%, 34%, 20%를 차지
- (화남권) 광둥省의 수입비중이 87%로 가장 높고, 푸젠省은 11% 차지
- (환발해) 산둥省, 톈진의 수입비중이 각각 27%, 18%로 가장 높은 편
- (동북권) 랴오닝省, 지린省의 수입비중이 50%, 48%로 가장 높은 편
- (중부권) 후베이省, 안후이省의 수입비중이 31%, 23% 차지
- (서남·서북권) 서남권에서는 충칭(36%), 쓰촨省(26%)의 비중이 높고 서북권에서는 산시(34%), 네이멍구(25%)의 비중이 높은 편

< 각 권역내 내수 수입액 1위 현황 >

(%)



: () 내는 2014년 각 권역내 수입비중 및 2008-2014년중 연평균 수입증감률

(3) 對한국 수입동향

□ 對韓 내수용 수입 상위품목은 반도체, 합성수지, 석유화학, 석유제품임

- '14년 對韓 내수용 공산품 수입중 반도체가 99억달러로 전체의 15.7%에 달했으며, 합성수지 8.2%, 유화중간원료 7.8%, 석유제품 6.0% 순임
- 한국의 점유율이 20%를 상회하는 품목은 기초유분(41.8%), 철강판(33.7%), 유화중간원료(33.3%), 석유제품(27.6%), 디스플레이(24.8%) 등임

□ 2014년중 유화중간원료, 석유제품, 철강판에서 한국의 점유율 상승

- 점유율상승(%) : 유화중간원료(27.4→33.3), 석유제품(21.3→27.6), 철강판(32.2→33.7)
- 반면 무선통신, 디스플레이, 기구부품, 기초유분 등은 점유율이 하락

< 중국의 對韓 내수용 상위 공산품 수입 현황 >

(백만달러, %)

	2007년	2013년	2014년	점유율		
				2007	2013	2014
반도체	3,021 (10.1)	8,499 (13.7)	9,927 (15.7) < 16.8>	(17.9)	(20.0)	(18.4)
합성수지	2,159 (7.2)	5,037 (8.1)	5,193 (8.2) < 3.1>	(20.0)	(19.0)	(18.4)
	2,325 (7.8)	4,974 (8.0)	4,971 (7.9) < -0.1>	(31.6)	(27.4)	(33.3)
석유제품	2,928 (9.8)	3,603 (5.8)	3,790 (6.0) < 5.2>	(25.4)	(21.3)	(27.6)
기초유분	1,517 (5.1)	3,978 (6.4)	3,765 (6.0) < -5.4>	(57.2)	(47.0)	(41.8)
자동차부품	1,299 (4.3)	3,524 (5.7)	3,751 (5.9) < 6.4>	(12.0)	(14.1)	(13.3)
철강판	1,318 (4.4)	2,172 (3.5)	2,334 (3.7) < 7.4>	(22.1)	(32.2)	(33.7)
자동차	159 (0.5)	1,829 (2.9)	1,816 (2.9) < -0.7>	(2.5)	(3.9)	(3.2)
디스플레이센서	1,588 (5.3)	2,039 (3.3)	1,790 (2.8) <-12.2>	(38.7)	(28.0)	(24.8)
플라스틱제품	455 (1.5)	1,462 (2.4)	1,537 (2.4) < 5.1>	(7.3)	(10.9)	(10.8)
계측제어분석기	254 (0.8)	1,322 (2.1)	1,281 (2.0) < -3.1>	(4.4)	(7.6)	(6.9)
기구부품	282 (0.9)	1,470 (2.4)	1,241 (2.0) <-15.6>	(11.3)	(24.7)	(19.1)
기계요소	393 (1.3)	1,129 (1.8)	1,191 (1.9) < 5.5>	(5.8)	(8.4)	(8.4)
무선통신기기	1,360 (4.5)	1,710 (2.8)	1,100 (1.7) <-35.7>	(21.9)	(15.5)	(10.2)
기타기계류	163 (0.5)	961 (1.5)	1,063 (1.7) < 10.6>	(5.2)	(13.4)	(12.5)
전 체	29,928 (100)	62,023 (100)	63,041 (100) < 1.6>	(11.2)	(11.0)	(10.6)

주 : 1. ()내는 對한국 수입총액 대비 비중, < >내는 전년비 증감률
 2. 품목분류는 중국 HS6단위를 한국 MTI 3단위로 연계

□ 對韓 수입은 화둥, 환발해, 화남권역 등 연안지역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省별로는 광둥, 장쑤省이 가장 많았음

○ 권역별로는 화둥, 환발해, 화남 등 3개 연안지역이 전체 對韓 수입의 약 90% 차지

- 권역별 수입비중 : 화둥 34.7%, 환발해 32.2%, 화남 22.6%

○ 省별로는 광둥省과 장쑤省의 비중이 각각 21.0%, 20.3%를 나타내어 2개 省의 수입비중이 對韓수입의 41.3%를 차지

- 이외 산둥省 (11.5%), 베이징 (10.8%), 텐진 (8.7%), 상하이 (7.3%), 저장省 (7.0%)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성별 수입순위에서는 한국은 장쑤, 텐진, 산둥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상하이, 저장, 푸젠 등에서는 한국의 순위가 하락

○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둥省의 경우 수입 1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쑤省, 텐진도 2007년 2위에서 2013~2014년중 1위로 올라섬

- 반면 상하이는 4→6위, 저장성은 2→3위, 푸젠省은 4→6위로 순위 하락

- 상하이에서는 영국, 이태리에 순위가 밀렸으며, 저장省에서는 대만, 푸젠省에서는 독일과 말레이시아에 순위가 뒤쳐짐

○ 반면 수입규모가 적은 서부내륙 및 동북지역에서는 한국의 수입순위가 3~5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동북3성의 경우 미국, 슬로바키아를 제치고 5→3위로 수입순위가 상승하였으며, 여타지역은 4~5권을 유지

〈 중국의 對한국 省별 내수용 공산품 수입현황 및 수입순위 (2014년)〉

		(백만달러, %)						
省		2007년	2013년	2014년	연증감률 (‘08~‘14)	수입순위		
						‘07	‘13	‘14
화동	상하이	3,012 (10.1)	4,531 (7.3)	4,590 (7.3)	< 6.2>	4	5	6
	장쑤	5,269 (17.6)	11,836 (19.1)	12,825 (20.3)	< 13.6>	2	1	1
	저장	3,808 (12.7)	4,776 (7.7)	4,441 (7.0)	< 2.2>	2	3	3
	소계	12,089 (40.4)	21,143 (34.1)	21,856 (34.7)	< 8.8>	2	3	3
환발해	베이징	3,362 (11.2)	6,865 (11.1)	6,817 (10.8)	< 10.6>	4	4	4
	텐진	2,530 (8.5)	5,968 (9.6)	5,473 (8.7)	< 11.7>	2	1	1
	산둥	3,717 (12.4)	7,292 (11.8)	7,235 (11.5)	< 10.0>	1	1	1
	허베이	244 (0.8)	635 (1.0)	778 (1.2)	< 18.0>	4	3	3
	소계	9,853 (32.9)	20,760 (33.5)	20,303 (32.2)	< 10.9>	2	2	3
화남	광둥	5,039 (16.8)	12,054 (19.4)	13,212 (21.0)	< 14.8>	3	3	3
	푸젠	773 (2.6)	1,087 (1.8)	910 (1.4)	< 2.4>	4	4	6
	하이난	19 (0.1)	228 (0.4)	123 (0.2)	< 30.3>	16	5	6
	소계	5,831 (19.5)	13,369 (21.6)	14,245 (22.6)	< 13.6>	3	3	3
중부	산시(山西)	94 (0.3)	16 (0.0)	17 (0.0)	<-21.5>	6	20	16
	안후이	193 (0.6)	916 (1.5)	776 (1.2)	< 22.0>	3	2	3
	장시	81 (0.3)	134 (0.2)	186 (0.3)	< 12.7>	8	6	6
	허난	56 (0.2)	56 (0.1)	97 (0.2)	< 8.0>	7	11	5
	후베이	152 (0.5)	366 (0.6)	834 (1.3)	< 27.5>	6	6	3
	후난	82 (0.3)	97 (0.2)	106 (0.2)	< 3.9>	5	6	6
	소계	658 (2.2)	1,585 (2.6)	2,016 (3.2)	< 17.3>	5	4	5
동북	랴오닝	701 (2.3)	3,310 (5.3)	2,916 (4.6)	< 22.6>	4	2	3
	지린	112 (0.4)	327 (0.5)	306 (0.5)	< 15.3>	8	8	7
	헤이룽장	93 (0.3)	64 (0.1)	67 (0.1)	< -4.6>	6	8	8
	소계	906 (3.0)	3,701 (6.0)	3,288 (5.2)	< 20.2>	5	3	3
서남	광시	91 (0.3)	108 (0.2)	124 (0.2)	< 4.5>	4	9	7
	충칭	67 (0.2)	263 (0.4)	516 (0.8)	< 33.9>	6	5	4
	쓰촨	289 (1.0)	616 (1.0)	432 (0.7)	< 5.9>	5	4	5
	구이저우	8 (0.0)	3 (0.0)	6 (0.0)	< -4.6>	9	18	15
	윈난	30 (0.1)	22 (0.0)	21 (0.0)	< -5.4>	14	15	16
	티베트	0 (0.0)	0 (0.0)	2 (0.0)	< 28.3>	7	12	5
	소계	485 (1.6)	1,013 (1.6)	1,100 (1.7)	< 12.4>	4	4	4
서북	네이멍구	31 (0.1)	321 (0.5)	119 (0.2)	< 21.0>	10	4	4
	산시(陝西)	44 (0.1)	68 (0.1)	67 (0.1)	< 6.2>	13	9	8
	간수	14 (0.0)	3 (0.0)	4 (0.0)	<-16.9>	12	23	21
	칭하이	0 (0.0)	23 (0.0)	4 (0.0)	< 44.4>	23	5	11
	닝샤	6 (0.0)	18 (0.0)	14 (0.0)	< 13.2>	15	8	11
	신장	10 (0.0)	21 (0.0)	25 (0.0)	< 13.4>	17	10	12
	소계	106 (0.4)	453 (0.7)	232 (0.4)	< 11.9>	14	4	5
합 계	29,928 (100)	62,023 (100)	63,041 (100)	< 11.2>	3	3	3	

주 : ()내는 권역별, 성별 수입 비중

IV. 중국 내수 공산품 수입시장에서의 국가간 비교²⁾

(1) 점유율 및 기업형태별 수입

□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에서 일본, 한국, 미국은 하락, 대만, 독일은 상승

○ 한국 : 2014년중 중간재, 자본재는 하락했으나 소비재는 점유율 상승

- (중간재) 점유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제치고 1위 수입국으로 부상

- (소비재)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가 4%p로 축소

○ 일본은 자본재 점유율이 소폭 상승한 반면 중간재, 소비재는 하락

〈 중국 내수용 공산품 시장에서의 국가별 점유율 〉

(%)

	전체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2007	2013	2014	2007	2013	2014	2007	2013	2014	2007	2013	2014
한국	11.9	12.3	12.1	14.3	15.3	14.9	7.4	9.3	8.9	11.5	6.6	6.7
일본	19.2	15.5	14.9	19.0	15.3	14.5	21.0	18.7	18.8	22.1	11.4	10.7
대만	7.2	8.6	9.6	8.9	10.8	12.0	5.0	6.5	6.9	4.1	3.6	3.4
미국	10.8	10.8	10.1	8.4	7.6	7.2	15.5	16.3	14.8	9.6	10.5	10.3
독일	11.4	11.9	12.6	9.5	10.0	10.9	19.2	21.2	21.1	8.2	8.7	9.0

주 : 1) 중국의 수입국중 중국을 제외하였으며, 한국의 중국내 생산이 많은 자동차 제외

□ 한국·대만의 경우 중국 민간기업의 수입 비중이 상승

○ 韓 민간기업 비중은 2007년 16.1%에서 2014년 31.4%로 상승

○ 독일·미국은 외투기업의 수입비중이 2014년중 각각 45.4%, 66.1%로 상승

〈 주요국가에 대한 기업형태별 내수용 수입 비중 〉

(%)

	국영기업			외투기업			민간기업			기타		
	2007	2013	2014	2007	2013	2014	2007	2013	2014	2007	2013	2014
對 한국	26.0	13.8	12.3	53.8	57.2	55.0	16.1	27.6	31.4	4.1	1.3	1.3
對 일본	24.4	17.5	16.0	56.9	60.4	62.0	15.9	20.7	21.0	2.8	1.4	1.0
對 대만	18.8	11.3	11.4	50.3	50.5	46.3	26.7	36.4	41.2	4.3	1.7	1.2
對 미국	36.9	26.9	22.2	39.1	41.3	45.4	20.0	29.3	30.3	4.0	2.5	2.0
對 독일	33.6	19.5	17.7	49.6	62.8	66.1	15.0	16.6	15.0	1.8	1.2	1.2

2) 수입 통계중 대중국 수입이 있어 이를 제외하였으며, 자동차의 경우 중국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한국의 중국내 생산이 많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권역·省별 순위

□ 중부·서북권역에서 한국의 진출이 경쟁국에 비해 아직 미흡

- 한국은 중부·서북 권역에서 5위, 서남권역에서 4위를 기록한 가운데 상기 3개 권역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省도 다수가 있음
- (중부권) 한국은 산시(山西)省에서 수입시장 점유율 0.9%로 독일, 일본은 물론 이태리, 벨기에, 말레이시아, 호주에 뒤진 16위 차지
- (서남권) 한국은 구이저우, 윈난에서 1.6%, 1.3%의 점유율로 이태리, 프랑스,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뒤진 15위와 16위를 기록
- (서북권) 칭하이, 닝샤, 신장지역에서 한국은 11~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간수지역은 수입액이 미미해 21위를 차지

< 중국의 내수용 공산품 수입 권역별 1~5위 국가 (2014년) >

	1위	2위	3위	4위	5위
화 동	일본	독일	한국	미국	대만
환발해	미국	독일	한국	일본	영국
화 남	대만	일본	한국	미국	독일
중 부	일본	독일	대만	미국	한국
동 북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슬로바키아
서 남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서 북	미국	독일	일본	이태리	한국

□ 한편 소비 수준이 높은 상하이에서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독일, 미국, 영국, 이태리와의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분발 필요

- (상하이)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독일, 영국, 이태리는 상승

< 상하이 지역 내수용 공산품 수입 점유율 >

	독일	일본	미국	영국	이태리	한국	대만
2007년 (a)	15.67	20.19	12.01	2.03	3.47	7.48	4.95
2013년	16.76	16.66	10.65	6.06	4.41	5.00	4.17
2014년 (b)	16.80	15.73	10.50	7.90	4.74	4.65	4.35
차이 (b-a)	1.13	-4.46	-1.51	5.87	1.27	-2.83	-0.60

(%, %p)

< 권역·성별 수입 점유율 및 한국의 순위 (2014년) >

(%)

권역	省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한국순위
화동	상하이	4.65	15.73	4.35	10.50	16.80	6
	장 쭈	17.72	15.95	9.80	7.86	11.08	1
	저 장	10.62	15.06	14.11	8.47	5.98	3
	소 계	10.26	15.68	8.12	9.21	12.73	3
환발해	베이징	9.51	11.46	1.34	23.23	24.27	4
	텐 진	21.29	17.54	4.04	10.17	10.19	1
	산 둥	18.99	8.14	3.16	9.59	6.81	1
	허베이	12.52	10.54	2.93	14.24	18.60	3
	소 계	14.33	11.63	2.39	16.80	16.77	3
화남	광 둥	9.96	13.69	16.19	6.25	4.22	3
	푸 쟈	6.34	9.37	15.91	10.53	6.75	6
	하이난	5.37	7.42	5.13	30.12	3.94	6
	소 계	9.54	13.18	15.99	7.03	4.46	3
중부	산시(山西)	0.93	16.73	9.78	8.60	20.51	16
	안후이	12.98	17.68	13.24	8.45	10.26	3
	장 시	5.78	7.48	18.22	10.09	8.01	6
	허 난	2.98	24.81	2.27	11.26	12.90	5
	후베이	10.17	19.80	9.47	7.32	9.24	3
	후 난	3.22	25.45	4.55	10.27	16.49	6
	소 계	7.81	18.91	9.92	8.89	11.53	5
동북	랴오닝	14.10	14.18	1.41	8.03	29.83	3
	지 린	1.67	11.85	0.43	1.25	53.48	7
	헤이룽장	3.46	8.37	0.60	24.38	16.51	8
	소 계	8.03	12.86	0.93	5.77	39.79	3
서남	광 시	4.55	7.76	2.50	11.25	7.81	7
	충 칭	8.38	14.85	3.37	18.33	17.12	4
	쓰촨	6.95	17.76	7.24	11.05	17.18	5
	구이저우	1.58	5.63	11.65	15.94	14.58	15
	윈 난	1.28	2.36	2.12	32.07	11.93	16
	티베트	3.60	0.36	0.11	4.37	76.17	5
	소 계	6.42	13.35	4.69	15.76	15.35	4
서북	네이멍구	7.51	12.10	0.67	21.35	13.56	4
	산시(陝西)	3.04	11.3	1.80	23.03	19.06	8
	간 수	0.91	6.64	0.85	13.74	12.54	21
	칭하이	1.93	13.48	0.18	14.96	28.94	11
	닝샤	1.93	12.21	1.03	8.37	35.60	11
	신장	1.93	4.21	0.85	18.63	16.02	12
	소 계	3.62	9.96	1.13	19.23	18.83	5

주 : 1) 중국의 수입 대상국중 중국을 제외하였으며, 한국의 중국내 생산이 많은 자동차 제외

(3) 소비재 수입 분석

□ 소비재에서 한국은 일본, 이태리, 미국, 독일에 이은 5위를 차지³⁾

○ 2014년중 일본, 대만은 점유율 하락, 독일 이태리는 상승세

- 점유율('13→'14, %) : 일본(11.4→10.7), 이태리(10.5→10.6), 미국(10.5→10.3), 독일(8.7→9.0), 대만(3.6→3.4)

□ 중국의 소비 상위 10개 省중 한국의 소비재 점유율이 상승, 하락한 省이 각각 5개인 것으로 나타남

○ 점유율 상승은 산둥省에서 가장 컸는데 이는 근접성과 함께 B2C 활성화로 한류소비재의 수입거점 역할이 확대된데 기인

- (산둥省 對韓수입) 무선통신(1,091%), 음향기기(159%), 소형가전(92%), 조명기기(108%), 화장품(37%) 증가

○ 반면 점유율 하락은 텐진에서 가장 컸는데 플라스틱, 도료·잉크, 영상기기, 의류의 對韓 수입이 감소한데 따른 것임

〈 소득·소비 상위 10개 省중 소비재 수입비중 (2014년)〉

소비순위	소득순위	권역	省	한국의 점유율 (%)		
				2013년 (a)	2014년 (b)	b-a
1	1	화 동	상하이	3.49	3.62	0.13
2	2	환발해	베이징	8.90	8.80	-0.10
3	4	화 동	저 장	6.04	5.89	-0.15
4	3	화 남	광 둥	4.15	3.41	-0.74
5	6	화 동	장 쑤	13.07	15.44	2.37
6	5	환발해	텐 진	14.98	9.78	-5.20
7	7	화 남	푸 쟈	2.38	2.46	0.08
8	11	환발해	산 둥	32.86	40.71	7.85
9	9	동 북	랴오닝	15.34	12.75	-2.59
10	8	서 북	네이멍구	1.44	10.06	8.62
전 체				6.56	6.65	0.09

주 : 소비는 1인당소비지출, 소득은 1인당 가처분 소득기준

자료 : CEIC

3) 현지생산이 많은 자동차를 제외한 것으로 자동차를 포함할 경우 한국은 영국에 뒤진 6위

〈 권역·성별 소비재의 수입 점유율 및 순위 (2014년) 〉

(%)

권역	省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영 국	이태리	한국순위
화동	상하이	3.62	12.31	2.65	6.76	6.75	1.30	17.72	9
	장 쭈	15.44	10.34	5.21	8.80	10.60	0.87	2.77	2
	저 장	5.89	20.17	4.44	8.17	8.51	2.37	12.96	5
	소 계	5.62	12.37	3.15	7.16	7.45	1.29	15.11	6
환발해	베이징	8.80	7.25	2.19	19.85	9.64	3.83	7.00	3
	텐 진	9.78	14.46	4.75	16.49	10.09	1.79	5.85	4
	산 등	40.71	7.18	1.43	6.88	4.35	0.63	2.40	1
	허베이	9.80	6.90	1.15	16.02	8.60	1.00	3.23	3
	소 계	12.62	8.12	2.40	17.88	9.07	3.17	6.27	2
화남	광 등	3.41	9.89	6.19	10.31	6.51	1.23	7.52	11
	푸 쟈	2.46	7.35	14.26	3.69	6.14	0.48	6.85	13
	하이난	0.60	0.71	0.85	4.43	22.90	1.02	3.64	23
	소 계	3.30	9.56	6.91	9.63	6.62	1.15	7.42	11
중부	산시(山西)	1.28	3.86	0.65	50.48	15.39	1.56	1.08	12
	안후이	4.74	8.51	3.30	14.56	15.75	1.04	2.78	6
	장 시	2.59	3.01	2.48	16.24	12.71	1.08	2.53	9
	허 난	10.01	9.18	1.73	16.21	4.64	1.23	2.06	3
	후베이	1.76	14.22	0.72	14.29	4.61	1.07	4.71	13
	후 난	0.63	3.38	0.99	7.71	0.93	0.39	1.68	16
	소 계	2.97	8.01	1.41	13.56	5.74	0.88	2.85	8
동북	랴오닝	12.75	12.11	0.46	4.93	45.73	0.44	2.91	2
	지 린	3.64	14.55	0.10	2.21	24.91	0.13	4.05	7
	헤이룽장	4.50	4.00	0.38	14.71	11.71	2.08	4.66	6
	소 계	8.85	12.73	0.31	4.27	36.19	0.38	3.43	3
서남	광 시	0.31	5.35	3.10	3.21	3.80	0.59	3.51	29
	충 칭	3.51	6.50	1.19	31.71	20.35	1.30	13.17	5
	쓰촨	2.93	24.48	1.64	17.84	8.84	3.29	10.31	8
	구이저우	0.98	0.75	0.15	28.48	0.39	0.30	0.12	6
	윈 난	0.37	0.03	0.11	6.53	0.84	0.15	2.11	19
	티베트	0.43	—	—	59.54	—	—	0.03	4
	소 계	1.93	9.63	1.02	16.83	8.03	1.44	7.25	11
서북	네이멍구	10.06	9.68	0.19	15.17	21.18	0.52	0.91	5
	산시(陝西)	2.25	4.91	1.22	32.68	6.70	2.83	1.81	10
	간 수	0.06	0.25	0.02	8.01	5.78	1.55	0.99	21
	칭하이	—	66.05	—	5.16	0.04	—	—	—
	닝 샤	—	9.01	1.96	3.64	22.53	—	9.02	—
	신 장	0.28	0.26	0.04	6.94	0.90	0.65	0.82	27
	소 계	1.98	4.34	0.59	18.67	5.78	1.58	1.40	13
전체	점유율	6.65	10.71	3.41	10.30	8.99	1.62	10.58	
	순 위	5	1	10	3	4	16	2	

주 : 1) 중국의 수입 대상국중 중국을 제외하였으며, 한국의 중국내 생산이 많은 자동차 제외

V. 對중국 유망 수출 품목 및 지역

(1) 수입급증 중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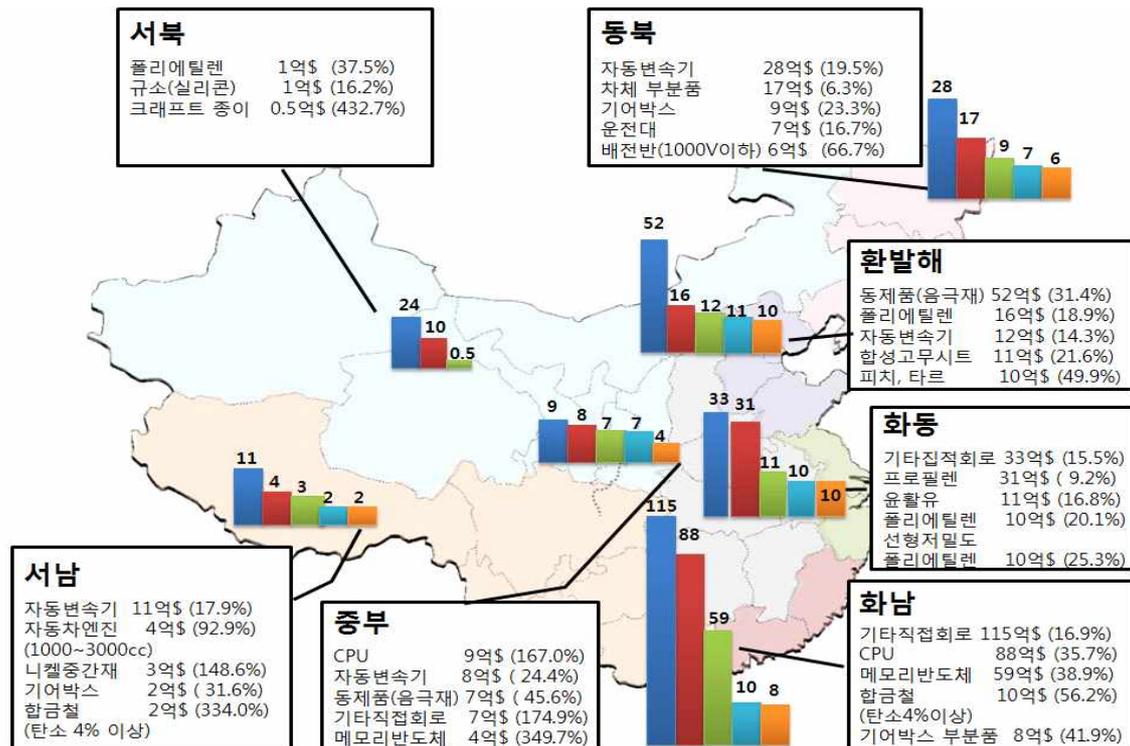
□ 중간재에서는 자동차부품(자동변속기, 기어박스 등), 반도체(CPU, 집적회로),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일부 석유화학의 수입이 급증

○ (자동차부품) 자동변속기, 기어박스 등이 동북, 서남, 중부 권역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

○ (전자부품) 기타집적회로, CPU, 메모리반도체, 음극재 등이 화남, 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

○ (석유화학) 폴리에틸렌 및 합성수지 등이 화동 및 환발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

< 권역별 내수용 중간재 수입급증 품목 >



주 : 1. 박스내는 2014년 수입액, () 내는 2014년 수입증감률 2. 중국 HS8단위 기준

(2) 수입급증 자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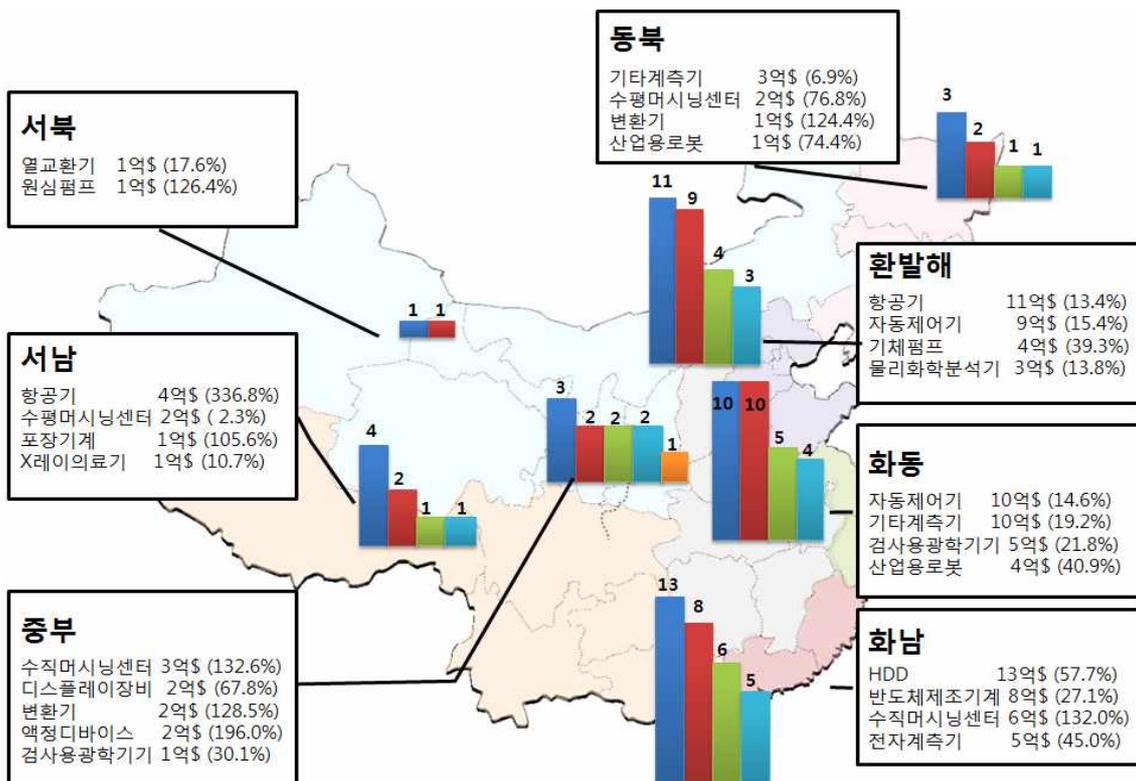
□ 자본재에서는 계측기, 자동제어기, 광학기기 등의 정밀기계와 머시닝센터, 산업용 로봇, 펌프류 등의 기계류의 수입 증가가 컸음

○ (기계류) 수평·수직머시닝센터, 산업용 로봇, 펌프류가 대부분의 권역에서 높은 증가세를 시현

○ (정밀기기) 계측기, 자동제어기, 검사용광학기기 등이 화동, 환발해 권역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

○ (전자) 반도체장비, 디스플레이장비, 액정디바이스, HDD 등 전자관련 자본재가 화남, 중부 권역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

< 권역별 내수용 자본재 수입급증 품목 >



주 : 1. 박스내는 2014년 수입액, ()내는 2014년 수입증감률 2. 중국 HS8단위 기준

(3) 수입급증 소비재

□ 소비재에서는 자동차 이외 조명기기, 의류, 식품류, 기록매체 등의 수입증가가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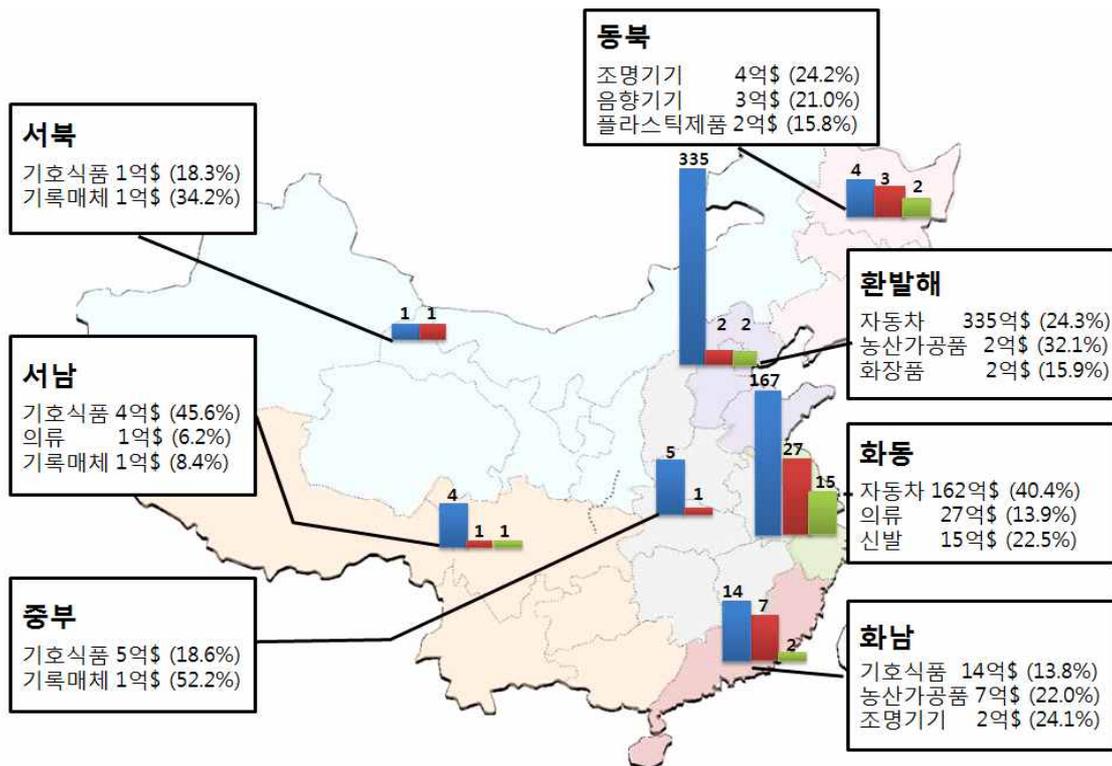
○ (자동차) 환발해, 화동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수입증가세가 높음

○ (의류) 화동, 서남 권역에서 의류의 수입증가가 높은 편

○ (식품류) 기호식품, 농산가공품이 환발해, 화남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 (기록매체) 서북, 서남, 중부 권역에서 저장장치 등 각종 기록매체의 수입증가세가 높은 편

< 권역별 내수용 소비재 수입급증 품목 >



주 : 1. 박스내는 2014년 수입액이며, ()내는 2014년 수입증감률 2. 중국 HS8단위 기준

(4) 여타 수출유망 품목

□ 중국 전체로는 아직 수입액이 많지 않으나 축적지, 여타 자동차부품, 기저귀, 공기정화기 등의 소비재 수입이 급증

○ (소비재) 비알콜음료, 맥주, 기저귀, 피아노, 보일러, 공기정화기, 주서기 등

○ (기계류) 인조방적기, 유리가공기계, 병박스기계, 주물기계 등

○ (전자) 축전지(리튬이온, 엔진시동용), 카메라모듈, 의료진단모니터 등

○ (철강) 아연고속도강 및 기타고속도강

< 중국 내수용 30개 수출유망 공산품 >

(백만달러, %)

	분야	품목명	중국의 수입(2014년)		對韓수입 (2014년)	
			수입액(증감률)	연증감률(08~14)	수입액(증감률)	
1	기호식품	비알콜음료	160 (46.2)	< 41.1>	47 (4.3)	< 29.2>
2		맥주	374 (74.3)	< 47.5>	12 (50.2)	< 3.2>
3	합성수지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991 (53.7)	< 15.7>	362 (163.9)	< 36.5>
4		스타렌-아크릴로니트릴공중합체	160 (40.5)	< 13.9>	20 (-6.9)	< 12.3>
5	섬유	탄성섬유사	109 (69.8)	< 22.4>	9 (10.5)	< 8.1>
6		기저귀	637 (52.6)	< —>	130 (-15.2)	< 20.4>
7	생활용품	피아노	127 (21.5)	< 27.5>	15 (12.5)	< 11.8>
8		금속장식품	463 (18.2)	< 27.3>	11 (-20.5)	< 2.3>
9	철강판	아연고속도강	261 (46.9)	< 35.3>	81 (70.5)	< 31.2>
10		기타고속도강	215 (77.5)	< 72.5>	8 (11.9)	< 3.6>
11	냉난방	가정용보일러	208 (41.0)	< 29.9>	18 (14.5)	< 8.6>
12	공기정화기	공기정화기	186 (136.9)	< 94.5>	132 (110.1)	< 71.2>
13	섬유기계	인조방적기	433 (151.5)	< 41.8>	18 (345.2)	< 4.1>
14	유리기계	유리냉간가공기계	100 (31.0)	< 18.3>	5 (43.5)	< 5.0>
15	포장기계	병박스봉합기계	183 (44.6)	< 29.2>	9 (27.1)	< 5.1>
16	주조설비	금속주물기계	168 (74.3)	< 21.6>	6 (-12.4)	< 3.5>
17	자동차부품	선루프	183 (48.5)	< 3.2>	65 (36.6)	< 35.4>
18		로드휠및부분품	132 (47.0)	< —>	16 (34.8)	< 12.2>
19		라디에이터(방열기)	141 (44.9)	< —>	13 (-8.6)	< 9.4>
20		피스톤내연기관펌프	173 (60.8)	< 12.9>	9 (81.3)	< 5.0>
21		차축(구동·비구동)	581 (65.0)	< 35.3>	26 (2.1)	< 4.5>
22	무선통신	카메라모듈	214 (125.9)	< 11.1>	53 (165.5)	< 24.6>
23		의료진단용모니터	101 (32.3)	< 22.7>	4 (-11.1)	< 4.4>
24	가전	냉장고	140 (142.0)	< 11.5>	114 (165.7)	< 81.6>
25		주서기	147 (85.8)	<148.2>	146 (86.2)	< 99.5>
26	축전지	리튬이온축전지	452 (134.1)	< —>	168 (87.9)	< 37.2>
27		1차전지축전지부분품	309 (54.2)	< 30.4>	41 (44.3)	< 13.3>
28		전기축전지	101 (40.1)	< 19.8>	9 (9.5)	< 8.8>
29		엔진시동용 축전지	213 (44.0)	< 42.0>	15 (-0.9)	< 7.1>
30	전선	전기케이블(80~1,000V)	150 (63.4)	< 16.9>	5 (343.0)	< 3.0>

주 : 1. 중국의 1억달러 이상 수입품목중 증가율이 높고 對中수출 실적이 있는 품목(HS8단위기준)

2. <->은 HS품목 신설 등으로 중국의 연평균 수입증감률 값이 없는 경우임

3. 중국의 수입대상국중 중국을 제외

(5) 유망 수출도시

□ 직할시와 성도(省都)를 제외한 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화동·화남권의 장쑤省, 산둥省, 광둥省 도시에서 수입 증가세가 높았음

○ **【화동】** 창수(22%*), 렌위강(22%*), 쑤저우(19%*), 쿤산(17%*), 우장(15%*), 취저우(24%*), 위야오(15%*) 등 7개 도시의 수입증가가 높았음

- (한국점유율) 렌위강, 쑤저우, 우장에서 상승, 여타지역은 하락

○ **【환발해】** 르자오(36%*), 동밍(25%*), 웨이팡(20%*), 지난(12%*), 바오딩(21%*)의 수입증가가 높았음

- (한국점유율) 동밍, 지난에서 소폭 상승, 여타지역은 하락

○ **【화남】** 산웨이(28%*), 선전(14%*), 닝더(58%*), 장저우(29%*), 단저우의 수입증가가 높은 편

- (한국점유율) 장저우, 단저우에서 상승, 여타지역은 하락

* 2008~2014년중 연평균 수입증감률

□ 중부·서남권역 도시의 내수용 수입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으나 한국의 수입비중이 미미하여 보다 적극적인 진출 노력 필요

○ **【중부】** 장시省 상라오의 한국점유율은 4.0%에 불과했으며, 허난省 자오쥘, 지위안의 한국점유율은 각각 0.2%, 0.9%에 불과

- 후베이省 장저우 1.8%, 후난省 주저우도 한국점유율이 3.3%에 그침

○ **【서남권역】** 광시省 베이하이, 위린지역은 한국점유율이 각각 4.4%, 0.7%에 불과

- 쓰촨省의 메이산, 이빈 지역도 높은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점유율이 0.1%, 0.2%에 불과

〈 중국 내수용 공산품 수입급증 30개 도시 〉

(백만달러, %)

권역	省	도시	중국의수입(2014년)		韓 (2014년)	한국점유율	
			수입액	('08~14)	수입액	2013년	2014년
화동	장쑤	창수	2,831 (25.8)	<22.3>	103 (-8.8)	< 5.0>	< 3.6>
		쿤산	5,722 (16.9)	<15.5>	1,021 (9.3)	<19.1>	<17.8>
		렌위강	2,462 (52.9)	<21.8>	570 (109.6)	<16.9>	<23.2>
		쑤저우	12,214 (18.8)	<16.8>	1,198 (19.5)	< 9.7>	< 9.8>
		우장	2,380 (21.7)	<14.7>	214 (25.3)	< 8.7>	< 9.0>
	저장	취저우	475 (18.2)	<24.0>	5 (-44.9)	< 2.5>	< 1.2>
		위야오	1,929 (15.1)	<15.3>	392 (10.3)	<21.2>	<20.3>
환발해	산둥	둥밍	4,985 (4.8)	<25.0>	98 (77.5)	< 1.2>	< 2.0>
		르자오	6,466 (23.5)	<36.3>	2,199 (20.3)	<34.9>	<34.0>
		웨이팡	2,085 (44.2)	<19.9>	239 (-13.0)	<19.0>	<11.5>
		지난	1,861 (49.5)	<11.6>	40 (97.3)	< 1.6>	< 2.2>
	허베이	바오딩	962 (72.9)	<21.0>	107 (85.8)	<10.4>	<11.1>
화남	광둥	산웨이	795 (53.3)	<27.6>	188 (30.2)	<27.9>	<23.7>
		선전	46,719 (25.9)	<13.9>	6,560 (24.6)	<14.2>	<14.0>
	푸젠	닝더	499 (126.6)	<58.4>	5 (-66.6)	< 6.5>	< 1.0>
		장저우	2,136 (96.5)	<29.1>	189 (149.0)	< 7.0>	< 8.8>
	하이난	단저우	733 (13043)	< —>	37 (—)	< —>	< 5.1>
중부	산시(山西)	진청	243 (264.6)	<13.6>	2 (-62.0)	< 8.9>	< 0.9>
	안후이	추저우	511 (66.2)	<43.8>	97 (18.7)	<26.6>	<19.0>
	장시	상라오	431 (352.2)	<28.4>	17 (7436)	< 0.2>	< 4.0>
	허난	자오쥘	330 (17.9)	<15.4>	1 (-73.8)	< 0.7>	< 0.2>
		지위안	231 (101.9)	<47.7>	2 (—)	< —>	< 0.9>
	후베이	징저우	369 (19.0)	<38.6>	7 (-12.2)	< 2.5>	< 1.8>
후난	주저우	602 (32.7)	<25.3>	20 (61.2)	< 2.7>	< 3.3>	
동북	랴오닝	번시	261 (120.1)	< 5.5>	1 (119.5)	< 0.5>	< 0.5>
	헤이룽장	다칭	247 (65.0)	<17.4>	1 (-41.4)	< 0.7>	< 0.2>
서남	광시	베이하이	459 (115.8)	<16.6>	20 (3714)	< 0.2>	< 4.4>
		위린	217 (149.8)	<30.6>	1 (-6.3)	< 1.7>	< 0.7>
	쓰촨	메이산	207 (68.3)	<34.9>	0 (-59.1)	< 0.4>	< 0.1>
		이빈	239 (12.2)	<17.1>	0 (50.0)	< 0.1>	< 0.2>

주 : 1. 북경, 상해 등 직할시 및 각성의 省都를 제외하고 수입이 급증하는 도시를 추출
 2. 중국의 수입대상국중 중국을 제외
 3.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소비재의 경우 한국은 중국의 수입증가 도시 20개중 7개에서만 점유율이 상승하여 점유율 하락 도시에 대한 수출촉진 노력이 필요

- 【화동】 난징, 우시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타이창, 닝보는 소폭 감소, 항저우는 점유율이 크게 감소
- 【환발해】 칭다오에서는 한국 소비재 점유율이 29.6%로 꾸준히 상승
- 【화남】 광둥의 주하이, 동관에서 점유율 상승, 선전, 샤먼은 하락
- 【중부】 정저우에서는 점유율 상승, 우한, 창샤, 허페이는 하락
- 【동북】 선양, 창춘 모두 한국의 점유율 하락
- 【서남·서북】 청두에서는 점유율 상승, 난닝, 우루무치 등은 소폭 하락

〈 중국 내수용 소비재(공산품) 수입급증 20개 도시 〉

(백만달러, %)

권역	省	도 시	중국의 수입 (2014년)		韓 (2014년)	한국 점유율	
			수입액	('08-'14)	수입액	2013년	2014년
화동	장 쑤	난징	328 (92.2)	<16.2>	51 (113.0)	<14.0>	<15.5>
		우시	205 (15.6)	<20.8>	5 (75.7)	< 1.5>	< 2.3>
		타이창	508 (16.3)	<26.7>	2 (-11.1)	< 0.6>	< 0.5>
	저 장	항저우	252 (5.1)	<14.7>	24 (-58.5)	<23.7>	< 9.4>
		닝보	216 (18.9)	<22.9>	12 (13.2)	< 5.8>	< 5.5>
환발해	산 동	칭다오	382 (11.2)	<25.3>	113 (18.7)	<27.7>	<29.6>
화남	광 둥	선전	3,089 (17.5)	<16.0>	73 (5.9)	< 2.6>	< 2.4>
		주하이	164 (0.0)	< 8.5>	6 (30.4)	< 2.8>	< 3.7>
		동관	315 (16.0)	< 6.2>	16 (25.5)	< 4.6>	< 5.0>
	푸 쟈	샤먼	300 (25.4)	<18.5>	7 (16.7)	< 2.4>	< 2.2>
중부	후베이	우한	158 (32.3)	<20.3>	5 (-53.9)	< 8.7>	< 3.0>
	후 난	창샤	239 (14.6)	<55.8>	2 (-0.8)	< 0.8>	< 0.7>
	허 난	정저우	36 (102.3)	<21.5>	4 (182.9)	< 8.1>	<11.4>
	안후이	허페이	58 (33.9)	<19.4>	3 (18.2)	< 6.0>	< 5.3>
	장 시	난창	38 (166.5)	<36.6>	1 (126.8)	< 4.5>	< 3.8>
동북	랴오닝	선양	550 (27.0)	<43.4>	60 (-17.0)	<16.7>	<10.9>
	지 린	창춘	560 (20.7)	<14.3>	5 (-12.3)	< 1.3>	< 0.9>
서남	광 시	난닝	38 (145.3)	<43.9>	0 (35.0)	< 0.5>	< 0.3>
	쓰 환	청두	255 (27.3)	<24.7>	5 (57.1)	< 1.7>	< 2.1>
서북	신 장	우루무치	59 (12.4)	<20.8>	0 (-65.2)	< 0.2>	< 0.1>

주 : 1.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 북경, 상해 등 직할시를 제외한 소비재 수입 급증 도시 추출
 3. 중국의 수입대상국중 중국을 제외하였으며, 소비재중 자동차 제외

VI.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의 내수용 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액도 2011년부터 1조 달러를 상회

○ 중국의 수입구조(2014년) : 내수용(56.6%), 가공무역(26.8%), 보세무역(14.9%)

□ 중국의 1위 수입국인 한국은 내수용 공산품 수입에서는 3위를 차지

○ 공산품 기준으로 중국의 對韓수입은 2014년 1.6% 증가하였으며 일본, 독일에 이어 3위를 차지

○ 중국 내수시장에서 일본과 한국은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미국은 정체, 독일·EU, 대만은 점유율이 상승

- 한국의 점유율(%) : 11.9('07년) → 12.3('13년) → 12.1('14년)

○ 한국은 중국 민간기업의 수입비중이 여타국에 비해 높아 중국 민간기업과의 거래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있음

□ 지역별로는 화둥, 환발해, 화남 등 연안지역이 전체 對韓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가운데 중부·서북권 진출은 경쟁국에 비해 미흡

○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쑤성, 산둥성, 텐진에서 한국이 수입 1위를 차지

○ 반면 중부·서북권역에서 4~5위이며 중부·서북권역 12개성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성도 5개에 달함

□ 한국은 중국 전체 내수용 점유율이 하락하였으나 소비재(자동차제외) 분야에서 점유율이 상승하여 소비재 진출에 성과를 보임

- 한국은 일본, 이태리, 미국, 독일에 이은 중국의 5위 소비재 수출국가로 점유율이 2013년 6.6%에서 2014년 6.7%로 소폭 상승
- 중국의 소비·소득 수준 상위 10개성중 5개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승
- 산둥성에서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지리적 근접성 및 B2C 활성화로 산둥성의 한국 소비재 수입거점 역할이 확대된데 기인
- 최근 중국의 반도체, 축전지, 금속공작기계,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증가 노력이 필요
- (소비재) 주서기, 비알콜음료, 기저귀, 피아노, 공기정화기 등의 수출호조세 유지 필요
- (기계·자동차) 선루프, 로드휠, 방열기, 머시닝센터 등 유망
- (전기전자) 메모리반도체, 리튬이온축전지, 카메라모듈, 전선 등이 유망
- 연안지역 도시지역의 내수용 수입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은 일부 도시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어 수출촉진 노력이 필요
- 연안지역 수입 급증 도시중 창수(장쑤성), 취저우(저장성), 웨이팡(산둥성), 닝더(푸젠성) 등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
- 소비재의 경우 수입급증 도시중 항저우(저장성), 우한(후베이성), 선양(랴오닝성), 타이창(장쑤성)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
- 금년들어 한국의 수출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중국 내수시장 공략 필요

- **(점유율 제고)** 중간재의 경우 일본을 추월하여 1위 수입국으로 올라섰으나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하여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는 첨단 중간재에 대한 투자확대와 수출산업화 필요
 - 자본재의 경우에도 2014년 중국의 對한국 수입이 감소하여 고가 장비 및 기계에 대한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지역별 차별화)** 소비수준이 높은 상하이에서 선진국과의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중부서북 권역 진출도 미흡한 만큼 지역별 특징을 감안한 차별화 전략 구사 필요
 - 제품 다양화 및 고급화, 중국 맞춤형 상품 개발, 한국상품의 브랜드화를 통한 중국 高소득 계층 공략 필요
 - 중서부지역 개발확대와 도시화 진전을 감안 소비증가 거점에 대한 현지 유통업체 공략 및 온라인 B2C 수출 강화 필요